

신춘문에 당선작

단편소설

슈게이징

김설옥

밤은 보이지 않는 소리들을 품고 있었다. 로얄 타운 뒷담으로 통하는 길목 어귀에 덩그러니 앉아 있던 검은 고양이 가 별안간 귀를 쫑긋 세우더니 어둠 속으로 후다닥 사라졌다. 몇 걸을 떨어진 곳에 몸을 숨긴 채 그것을 보고 있던 정혜가 얼른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다. 큰 길 쪽에서 자동차 달리는 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지기를 되풀이할 뿐 별다른 기척은 없었다. 차 소리는 꽤 꽤 날카롭게 몰아치는 난바람에 묻혀 얼핏 과도 소리 같기도 하고, 긴 터널 속에 들어와 있는 것도 같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열어서 재차 시간을 확인했다. 움직이기에 딱 적당한 시간이었다. 지금이야, 바로 지금. 정적이 웅덩이처럼 고인 곳을 훌쩍 건너뛰며 정혜는 자신이 한 마리의 고양이 같다고 생각했다.

가슴이 뛰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정혜는 가택침입을 시도하는 중이었고

목적지는 다름 아닌 케이의 집이었다

도둑고양이가 어디 있어?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이지. 지니의 말이었다. 어디서 그럴까한 문구를 찾아내는지 잊을 만하면 꼭 몇 글을 달아서 기를 죽이고는 했다. 오후에도 누구와 다른 이야기를 하던 끝에 고양이에게 아파트와 빌라가 무슨 차이가 있으며 고귀한 곳과 후진 곳, 안과 밖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며 갖은 너스레를 떨더니, 이따가 고양이처럼 그냥 통과하면 된다는 말씀, 하는 것이었다.

그래도 가슴이 뛰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정혜는 엄연히 가택침입을 시도하는 중이었고, 목적지는 다름 아닌 케이의 집이었다. 건물 안으로 돌하는 유리문 위에 'CCTV 촬영 중'이라는 팻말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CCTV가 연결된 경비실은 비어 있을 시간이었다. 그것은 고양이처럼 경계를 넘나드는 물체를 단순히 기록하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리라. 정혜가 유리문을 열고 몸을 안으로 들여놓았다. 불 꺼진 건물 안은 동글처럼 어두웠다. 너무 작막하기 때문인지 사람 사는 곳 같지가 않았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 계단 쪽으로 걸음을 돌렸다. 그것은 지니가 알려준 주의사항 가운데 하나였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 것, 현관등을 켜지 말 것, 사람 편하게 만들고 만들어 놓은 거라면 뒤통스만 피하고 불 것, 기타 등등. 소리를 죽이기 위해 발가락에 힘을 주고 앞쪽부터 천천히 땅에 붙였다가 조심스럽게 떼며 걸었다. 1111호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자꾸 헛웃어졌다. 이윽고 잠금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가 싶더니 몸이 안으로 쭈욱 빨려 들어갔다. 정혜는 흠칫 뒤를 돌아보았다. 누가 등을 때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든 때문이었다. 휘유, 정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니의 능력이 세삼 놀라웠다. 어떻게 번호를 알아왔을까? 하얀 고무 신발이,

그녀로부터 아파트 위치를 비롯해 경비 물대 단지 안에 진입하는 요령, 가정부와 매니저가 들리는 날짜와 시간대,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를 전수받던 날 정혜는 완전히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멤버들의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를 비롯한 신상정보, 스케줄 같은 것들은 약간의 돈과 시간만 투자하면 어떻게든 알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는 굉장한 고급 정보였다.

언더그라운드를 박차고 메이저로 나온 슈게이징 그룹 '불청객들'에 대해 지니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었다. 장르 자체가 생소했다. 낮은 음으로 속울음을 참듯이 노래하는 케이에 대해 처음에는 꼴불견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발랄한 바라보며 큰 소리를 내다 들어가 버리는, 튜닝도 리듬도 예측할 수 없는 팝. 어느 음악 잡지의 편집자가 신발(슈)만 보고(게이징) 노래하는 불친절한 무대

너를 두고 비아냥대던 표현이 그대로 이름이 된 장르. 하지만 그 억제된 슬픔 속에 마술이 있었다. 불청객들의 리드보컬 케이의 그 훼손할 수 없는 쓸쓸함이 모든 것을 증명했다. 혈관을 통해 무언가 뭉뚱한 것이 계속 주입되고 있는 듯이 불쾌한 매력을 수줍게 감추고 있는 모습, 그것이 케이의 내부를 향해 하루살이 떼처럼 모여드는 오디쿠를 만들었다.

정혜는 환관에 오도카니 선 채 어둠이 깔린 집 안을 잠시 응시했다. 정면으로 보이는 발코니 유리 바깥에서 눈은 여전히 어지러운 선을 그으며 쏟아지고 있었다. 케이는 다음 앨범 뮤직비디오 촬영차 외국에 나간 상태이고, 집안 살림을 맡아 하는 가사 도우미는 새벽 일찍 다녀갔다. 적어도 내일 아침까지는 올 사람이 없다는 의미였다. 워낙 스케줄이 바쁜 그였지만 이렇게 하루 오롯이 집

터 속에만 존재했다.

지니를 실제로 만난 사람이 없기 때문인지 이런저런 소문도 많았다. 팬들의 여론을 파악하고 컨트롤하기 위해 소속사에서 심어 놓은 직원이라는 말도 있었고, 유명한 정치인의 딸이라 신분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다. 하지만 지니는 일련의 소문을 부정하며 자신은 외국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혜는 그녀의 말을 믿었다. 자신에게 집주수와 모바일 넘버를 알려주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다알리아 스트리트, 브리시번, 큐엘디, 오스트랄리아 어쩌고 하는 알파벳 주소는 얼마든지 가짜로 지어낼 수 있었다. 직접 통화를 해 본 적이 없는 전화번호 역시 팩트 체크를 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정혜는 지니가 굳이 그렇게까지 구차하게 알리바이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아는 한 지니는 누구보다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다.

정혜는 발코니에서 떨어져 거실을 한 번 훑 둘러보고는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토록 갖고 싶었던 케이의 부츠를 훔쳐내는 데 성공하면 지니는 자신을 완벽하게 신용할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비밀을 알게 해줄 것이다.

거실은 침침했다. 하지만 선풍기 불을 켜 수는 없었다. 매시 정각마다 단지를 구석구석 돌며 순찰을 하는 경비원이 이집 밤 동안 비어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 만약 발코니로 빛이 새어나가는 것을 발견하면 의심을 사게 될 것이 분명했다. 정혜는 휴대폰을 열어 주변을 비춰보았다. 케이의 가장 깊은 곳을 알고 있는 비밀스런 소품들이 윤곽을 드러냈다. 2G 폴더폰에서 나오는 희미한 광선이 가죽 소파 한 귀퉁이를 비췄다가 바닥에 깔린 카펫으로 옮겨갔다.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빛이 너무 희미하다는 것이었다. 수평이 거의 다해서 하루에 서너 번은 배터리 충전을 해줘야 하는 고물 휴대폰이었다. 이럴 때 스마트 폰으로 플래시 어플을 다운받아 사용했다면 좋았으리라. 하지만 단 정혜에게는 수십만 원짜리 기계를 토크 살 만한 능력이 없었다.

-아나, 네 예미 내다 팔아라.
정혜의 엄마는 똥가를 사달라고 하면 항상 그렇게 말하곤 했다. 돈이 없다는 표현을 좀 사나게 예두면 말이었다.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일하면서 왜 늘 돈이 없는 건지, 그렇게 번 돈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다만 돈 없는 엄마와 아빠가 싫었고 전하의 불효자식 같은 생각을 하는 스스로가 싫었고, 자신을 그렇게 낳아 놓은 엄마와 아빠가 다시 싫었다. 이따금 미안하거나 애잔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런 기분은 오래 가지 않았다. 좋을 때보다 싫을 때가 더 많았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그랬다. 정혜가 언제나 변함없이 좋아하는 건 오직 케이 뿐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닫은 뒤 입고 있던 점퍼 안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어차피 눈이 어둠에 적응이 되어서 아주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다. 정혜가 발코니 쪽에서 제일 가까운 방으로 다가가 문고리를 잡아 비틀었다. 날찍 한 방 한방에 새하얀 이불보가 덮인 킹사이드 침대가 놓여 있었다. 일순 정혜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녀는 침대 위로 휙 몸을 던졌다. 케이가 자는 침대였다. 그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부들부들하고 좋은 냄새가 났다.

문득 지니가 짝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 마스터베이션을 하는 여자 이야기가 해줬던 것이 떠올랐다. 지니는 그것이 로망이라고 했다. 누군가 방에 숨어들어서 자신의 침이 말라 붙은 베게에 코를 박은 채 야릇한 신음소리를 내다 가는 것. 그러면 자기는 집에 돌아와서 '좀 이상한 걸. 결혼하면 뭐가 달라?'하고 고개를 가우뚱하지만, 결국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베게에 머리를 대고 잠드는 것이.

-이상해, 베테 같애.
-동의. 하지만 알잖아, 사람은 누구나 조금씩은 이상하고 조금씩은 베테야.
-음, 나도 동의.
-당연하지.

정혜가 지니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케이의 베개를 살짝이 뜯어보았다. 참 마른 자국 같은 건 없었다. 확실히 케이는 천사처럼 양친하게 잘 잘 같은 이미지였다. 그녀는 케이의



그림 = 한희원

- ▲조선대 미술교육과 졸업
- ▲광주시전·무등미술대전 심사위원
- ▲전남연극제 무대미술상·대동미술상 수상

얼굴을 그려보려고 애쓰며 두 손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문질렀다. 하지만 아무런 집중하려고 해도 흥이 들지 않았다.

-방법이 틀렸더니깐. 혼자 할 땐 깔다리는 생각하고 골장 3루로 달려야지.
어디선가 지니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난 3루가 어딘지 모르겠는 걸. 정혜가 진저리를 치며 대자로 누웠다. 텅 빈 천장이 눈에 들어왔다. 아무 무늬 없는 진갈색 벽지가 발라져 있었는데, 어둠 때문에 거의 검정색처럼 보였다.

자기 몸을 만지면서 흥분한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그녀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호기심에 몇 번 시도해보긴 했지만 손가락과 함께 기분만 짚 짚해질 뿐 좋은 점이라고 하나도 없는 것 같

입맛을 쥼 다시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신발을 찾는 게 우선이었다

방 안에는 침대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었다. 하기가 섹스도 별다른 건 없었다. 정혜는 고등학교 일학년 때 처음으로 남자랑 잤다. 상대는 아르바이트에서 만난 오빠였는데 내심 짝사랑하고 있었다. 방학을 맞아 그의 자취방에 놀러갔다가 같이 술을 마셨고, 머리가 어질어질해서 잠깐 침대에 몸을 갖다져서 쉬었다. 부들부들하고 좋은 냄새가 났다. 안 돼, 나 오늘 그날이란 말이야. 정혜가 말하자 오빠는 괜찮다고 했다. 약간 겁이 났지만 눈 딱 감고 해버리면 그와 사귀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고, 친구들에게 경험담을 자랑하고 싶기도 해서 내버려 두었다. 남들은 첫 경험 때 죽도록 아팠다는데, 너무 취했기 때문인지 아픈 것도 몰랐다. 일을 치르고 나선 끝장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보니 이불에 피가 흥건했다.

-오빠, 일어나 봐. 어떡해. 나 피나.
정혜는 옆에서 잠들어 있는 오빠의 어깨를 흔들었다. 그가 부스스 일어나 이불을 들춰보더니 인상을 구겼다.
-에이 씨발, 가지가지 하네. 피를 보니 뒤늦게 허벅지와 사타구니 사이가 육신육신 아러 왔다. 배속 내장이 당기고 저릿저릿한 것 같기도 했다. 그녀는 괜히 서러운 기분이 들어서 훌쩍훌쩍 울었다.
-울긴 왜 우냐? 생리해서 그런 건데. 병신.

그는 거친 손길로 이불을 걷어내며 욕박질했다.

이후로도 다른 사람들과 몇 번 더 해봤지만 마찬가지였다. 컨디션에 따라 조금 더 아프거나 덜 아프 정도의 차이였다. 지니는 정혜가 아직 제대로 된 섹스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정말 확실하게 하면 더 없이 좋게 섹스라고 했다.

-한국 애들보다 여기 남자가 더 잘하는데, 놀러 올래? 시티 관광도 시켜 줄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는 그 제안을 받을 때마다 정혜는 지니가 백인 남자와 섹스하는 장면을 상상하곤 했다. 몸에 털이 숭숭 난 덩치 밑에 깔린 채 강경 신음하는 그녀의 모습을 그려보면 어쩐지 가슴이 뻘뻘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정혜는 이따금 자신이 레즈비언은 아닐까 생각했다. 남자랑 할

물하는 편지와 인형 같은 것들을 귀찮아해서 다 버린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도 같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사실 케이가 여러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나 평소 태도로 추측컨대, 그렇게 실용성 없는 선물을 싫어하리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였다. 불청객들 정규 앨범 2집 히트 트랙에 수록된 케이의 자작곡 'To be, or not to be'에 그런 가사도 있지 않았던가. 너는 쓸모없는 놈, 사용되지 못하는 놈, 그저 존재함으로써 존재하는 놈,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라면 이제 그만 사라져 버려, 사라져 버려, 사. 사. 사라져 버려.

그래서 정혜는 종이학이나 인형, 팬티어 따위는 결코 선물하지 않았다. 주로 선물하는 건 케이가 좋아하는 수입 초콜릿이나 목에 좋은 캔디 같은 것들이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먹어치울 수 있을 만큼 적은 양으로, 방송국이나 공연장 근처에 주차한 그의 밴 앞에서 기다렸다가 직접 전달했다. 정혜가 먹거리리를 내밀면 케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그것을 잠시 내려 보다가 아무 표정 없이 휙 넘어가곤 했다. 그가 선물을 받으면 정혜는 허리를 꺾으며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했다. 그러면 케이는 습관처럼 고개를 한 번 까딱하곤 아무 말도 없이 돌아서 차에 올라탔다. 습사리 감동하지 않는 태도는 케이가 평소에 추구하던 음악과도 묘하게 어울려서, 서운하기는 커녕 도리어 고맙게 생각됐다.

그 무심한 표정을 일 초라도 더 보려고 차창에 얼굴을 들이대다가 매니저와 말다툼을 하기도 했다. 한심한 년들, 그 열정으로 부모님 생일상 한 번 차려 드려라. 매니저가 그렇게 욕을 하면 정혜는 무리를 지어 다니던 다른 팬들과 입을 모아 소리를 지르며 반박했다. 생일상 차려 줄 부모가 없는데 어쩔래, 우리 덕에 월급받고 사는 주제에, 오빠 수발이나 똑바로 들어, 하면서.

정혜는 불청객들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침실 밖으로 나왔다. 쓸모없는 놈, 사용되지 못하는 놈, 보컬을 담당하는 케이가 드물게 작곡과 편곡, 드럼과 베이스 반주까지 완전히 혼자 맡아 만든 노래. 지지거리는 전자음을 많이 삽입하고 요즘 유행하는 후크 송 스타일을 접목시켜 같은 노랫말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불청객들의 노래 중에서도 정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었다. 사라져 버려, 사. 사. 사라져 버려, 흥이 오른 그녀의 발가락이 울퉁거렸다.

(25면으로 계속)